
2015년 베트남 진출전략 보고서

2015. 2

kotra

아시아지역본부 / 하노이무역관

목 차

I.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3

II. 2015년 주요이슈 및 트렌드 7

- 2-1. 한-베 FTA 타결로 우리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 가속화
- 2-2. 국제유가 하락은 베트남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전망
- 2-3. 국영기업 구조조정은 지지 부진, '15년 큰 경제과제
- 2-4. 플랜트 및 공공조달 시장 지속 확대 국면
- 2-5.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베트남의 참여전략은?

III. 베트남 시장 진출전략 11

- 3-1. 중장기 진출 전략
- 3-2. 세부 추진 전략

【별첨】

- 가. 관할지 경제동향 14
- 나. 우리나라 진출현황 19
- 다. 2015년 무역관 추진사업(잠정) 24

베트남은 경기 회복세에 따른 2015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여 수출(소비), 투자의 선 순환적 기회 요인을 가지고 있음. 2014년 한-베 FTA, 베-관세 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FTA 협상 타결에 이어, 2015년 베-EU FTA, TPP 협상 타결 추진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교역확대 노력 강화하고 있음. 하지만 높은 수출의존도, 공공부채 증가, 국제 유가 하락 등은 베트남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전망

① 베트남은 빠른 경제성장과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주목받으며 차세대 아세안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국가로 부상

- '86년 "도이머이(刷新)정책"(개혁·개방) 채택후 6-7% 이상의 높은 성장세 달성
 - '12년, 글로벌경제위기와 내수침체로 13년만에 가장 낮은 5%대 성장률 기록하였으나, '14년 5.9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
- 인구 30억 명의 거대시장인 아세안(6억)과 중국(13억), 인도(12억)를 연결하는 경제 허브로 부상, 경제개방도 확대 노력 중
 - 최근 TPP, ASEAN+3, RCEP, FTA 등에 적극 참여하며 개방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15년 TPP와 베트남-EU FTA 협정 발효시, 베트남의 대외신인도 향상 기대

② 거시 경제 안정화 및 점진적인 경제성장 기조 지속

- (GDP) 2014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98%로 2012년 5.25%, 2013년 5.42%에 이어 3년 연속 5% 이상의 성장 기록
 - 특히 2014년 1분기 5.06%, 2분기 5.34%, 3분기 6.07%, 4분기 6.96%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2015년 경제전망에 청신호
 - GDP 성장률: 2011(6.2%)→2012(5.2%)→2013(5.4%)→2014(5.98%)→2015목표(6.2%)
 - 2014년 국제 신용기관의 베트남 신용등급 상향 조정
 - * Moody's 국가 신뢰지수 : B2 → B1 (2014. 7월)
 - * Fitch 장기외화매매 및 통화매매 발행채 신용등급 (IDR) : BB → B+ (2014. 11월)
 - (소비자물가) 2014년 베트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4.09%로 2013년 6%보다

더욱 낮아진 안정 기조 유지

- (교역) 2014년 사상 최대인 21.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수출 U\$1,501.9억, 수입 U\$1,480.5억) 기록 및 이에 따른 對미국 달러와의 환율 안정화 기여
 - * 무역수지 추이(단위:U\$): 2011(△98억) → 2012(8억) → 2013(0.1억) → 2014(21.4억)
- (외국인투자) 2014년에 202.4억 달러의 FDI 유치로 (신규 156.5억, 증액 45.9억) 안정적 기조 지속
 - * FDI 추이(억달러): 2010(172) → 2011(147) → 2012(130) → 2013(216) → 2014(202)

③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노력 가속화

- 2014년 한-베 FTA, 베-관세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FTA 협상 타결에 이어, 2015년 베-EU FTA, TPP 협상 타결 추진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교역확대 노력 강화
-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대응한 내부 정비 등 글로벌 경제체제 구축 가속화

④ 외국인자본 유입 및 사회인프라 구축이 경제성장을 견인

- 매년 GDP의 12~18% 규모의 신규 FDI 유치, 7~9%규모의 ODA 공여
 - 플랜트, 자원개발에 일본, 중국, 유럽의 투자 및 ODA 규모 확대
- 2009년 이후 세계경기 침체 및 베트남 국내 경제 불안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정체, 2011년 이후 증액투자가 늘어나면서 성장
- 2014년 외국계 기업의 총 투자액은 202.4억불로 '13년 대비 10.2% 감소
 - 하지만 투자건수는 '14년 2,182건으로 '13년 1,530건 대비 42.6% 증가

<최근 5년간 對 베트남 외국인 투자동향>

(단위 : USD 백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프로젝트수	신규	969	1,091	1,100	1,275	1,619
	증자	269	374	435	472	563
금액	신규	17,230	11,559	7,854	14,272	15,653
	증자	1,400	3,137	5,159	7,355	4,588
총 투자액		18,630	14,696	14,013	21,628	20,241

* 자료원 : 베트남 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

○ '11.8월 출범한 신내각은 사회인프라 구축을 핵심 경제목표로 추진

-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주도 대규모 관급공사가 증가하여 '14년 건설시장 성장률은 8.6%를 달성하였으며 '15년에도 지속 성장 전망

* 국가 도로망 구축을 위해 '15년까지 총 238억 달러 투자 계획

- 한편, 공공 IT프로젝트 지속 발주, '14년 전자정부 등 27.3억불 규모



⑤ 무역수지 적자, 높은 수출의존도, 공공부채 증가 등 베트남 경제성장 걸림돌 작용

○ 무역수지 적자 유지에 대한 우려 제기

- 2012~2014년의 무역수지 흑자는 국내 민간투자 및 소비부진, 재정악화로 인한 공공지출 긴축에 따른 불황 속의 흑자로 분석

- 2015년 본격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경우, 원자재 수입 등의 대폭 증가로 총 수출액의 5% 정도의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우려

- 아울러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은 베트남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 우려

* 베트남 원유 수출액 및 전체 수출품목 중 순위(단위: 달러)

2011(72억, 2위) → 2012(82억, 3위) → 2013(72억, 4위) → 2014(73억, 5위)

* 산유량 30% 감소 시, 경제성장률이 0.8~1.2% 감소 예상

○ 높은 수출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시 위험도 증가

- 베트남의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수준(2014년)

- 미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2015년 경제성장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문제와 중국, 일본, 러시아의 낮은 경제성장은 베트남 수출실적 전반 및 해외 직접투자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 예상

○ 공공부채 증가, 국가 재정부담의 대형 악재로 여전 상존

- 2014년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10억불의 공채 발행, 하지만 대부분 부채상환 연장에 사용
- 2015년 공공부채 비율 상한선인 GDP 65% 경계선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 제기

⑥ 수출 및 투자진출의 땅, 우리기업의 진출 지속 증가

○ 2014년 한국은 베트남으로 수출 223.3억불, 수입 79.9억불로 총 교역액 303.2억불, 무역수지 143.4억불 흑자를 시현

< 對베트남 수출입 동향 >

단위: 백만불, 증가율(%)

년도	2011	2012	2013	2014
수출	13,551(44.9%)	15,946(18.4%)	21,088(32.2%)	22,333(5.9%)
수입	5,084(52.7%)	5,718(12.5%)	7,175(25.4%)	7,989(11.3%)
교역액	18,635(46.9%)	21,664(16.3%)	28,263(30.5%)	30,322(7.3%)
무역수지	8,467(40.6%)	10,236(20.9%)	13,913(35.9%)	14,344(3.1%)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OTIS)

○ 베트남은 한국의 6위 수출대상국, 15위 수입대상국 (8위 교역대상국)

- 베트남의 입장에서 단일국가 기준, 한국은 3위의 교역대상국 (수출 4위, 수입 2위)

< 베트남이 차지하는 한국 교역내 위상 변화 >

- 수출 : ('05) 18위 → ('07) 13위 → ('10) 9위 → ('12) 6위 → ('13) 6위 → ('14) 6위
- 수입 : ('05) 35위 → ('07) 32위 → ('10) 28위 → ('12) 20위 → ('13) 16위 → ('14) 15위
- 교역 : ('05) 25위 → ('07) 25위 → ('10) 15위 → ('12) 14위 → ('13) 9위 → ('14) 8위

○ '88-'14년 누적기준 對베트남 국가별 외국인 투자금액(증자포함) 순위는 한국이 372.3억불 (투자건수 4,110건)로 1위를 기록

* 한국 ('12)11.8억불→('13)43.0억불→('14)73.3억불 / '88-'14년 누적 4,110건, 372.3억불

* 일본 ('12)51.4억불→('13)57.5억불→('14)20.5억불 / '88-'14년 누적 2,447건, 369.0억불

○ 투자진출 형태는 첨단 분야로 다변화/고도화, 대 중소 동반진출 양상

- 섬유가공 위주에서 전자, IT, 1차금속 등의 투자가 확대되고, 대기업 생산 공장 설립으로 중소 협력기업 동반진출 확대 중

* '14년 한-베트남 FTA타결에 따른 합성수지, 편직물, 아연도강판,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소재·부품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출 및 투자진출 가속화 전망

- 신규 개방분야인 유통업,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서서히 증가 추세

* 롯데마트, 롯데리아, 카페베네, 뚜레쥬르 등 유통 프랜차이즈 진출 확대

① 한-베 FTA 타결로 우리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가속화 전망

- (상품) 양측의 민감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2012년도 수입액 기준 한국 94.7%, 베트남 92.2%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
 - 한-아세안 FTA 자유화율 대비 한국 3%p, 베트남 6%p 자유화율 증가
 - 베트남 측은 이미 대한 수입의 86.2%(수입액 기준)를 양허, 1.2%는 무관세, 1.7%는 3년 내, 2.9%는 10년내, 나머지 0.1%는 15년내 관세철폐
 - * (3년) 면직물, 편직물 등 (5년) 믹서기, 자동차 부품, 전선, 전동기, 합성수지 등 (7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 (10년) 타이어, 화물자동차(5~20톤),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
- (투자) 한-아세안 투자협정, 한-베 양자 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 2014년 말 기준 국가별 누적 투자금액(증자포함)중 한국은 372억불(4,110건)로 전체 투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약 3,320여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바,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 * 2014년 한 해 동안 베트남 전체 투자국 중 한국은 73억불로 1위 기록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 28억불, 일본 21억불, 대만 12억불을 기록)
 - 2015년에도 삼성전자, LG전자의 대기업 투자 및 관련 협력 중소기업의 진출로 더욱 확대되어, 관련 우리나라 부품소재 및 유관 품목으로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원산지)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으로 한국 기업 부담 완화
 - (기계, 전기전자) 한-아세안보다 신축적인 6단위 세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40%)으로 합의
 - (자동차부품) 4단위 세번 변경을 다수 추가해 업계 편의 제고(예: 기어박스, 차축 등)

② 국제유가 하락은 베트남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전망

- 베트남 기획투자부 Mr. Bui Quang Vinh 장관은 국제 원유가격 폭락에 따라 2015년 베트남의 경제성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 산유국인 베트남은 유가 하락에 따라 원유 수출량 감소시 베트남 경제 성장에 직격탄 될 것
- 원유 수출량 30% 감소시, 2015년 경제성장률은 0.8~1.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 * 배럴당 원유 가격이 1달러 감소시, 국가 예산 손실은 VND 1조~1.2조 (US\$ 500~600억)으로 추정
- 또한 원유 가격 하락은 국가 예산 수익,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많은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므로 베트남 정부는 기획투자부, 재정부, 산업무역부, 중앙은행의 대표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세워 대응전략 시나리오를 계획해야한다고 언급

○ 국제 유가 30% 하락시, 베트남은 경상수지 2,976백만달러 감소 예상

- 유가 하락에 따른 주요 수혜국으로는 중국, 인도, 한국 등이며, 베트남은 피해국으로 조사됨

< 국제 유가 30% 하락 지속시 주요 아시아국 경상수지 변화 예상치 >

(단위: 백만달러)

주요 아시아국	연평균 유가 USD 104/배럴 경상수지	유가 30% 하락 유지 시 경상수지	경상수지 증감액	비고
중국	182,807	252,632	69,825	흑자확대
인도	-49,226	-1,521	47,705	적자축소
한국	79,884	111,670	31,787	흑자확대
태국	-2,678	9,403	12,081	흑자전환
필리핀	9,423	11,228	1,805	흑자확대
인도네시아	-28,450	-27,789	661	적자축소
말레이시아	11,732	10,756	-976	흑자축소
베트남	9,471	6,495	-2,976	흑자축소

* 출처: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력회)

- 베트남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경상수지 2,976백만 달러 감소가 예상되지만, 경상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를 유지하는 국가로서, 유가 하락이 유지되어도 경상수지 흑자 금액이 완충자본(buffer capital)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도 조사됨
- * 이는 베트남 경제 펀더멘탈의 건전성에 따라, 유가하락의 부정적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음을 시사

③ 국영기업 구조조정은 지지 부진, 2015년의 가장 큰 경제과제

-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의 지분 매각, 국영기업의 비핵심사업 자회사 매각, 상장기업에 준하는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추진 중
- 베트남 국영기업들은 방만경영으로 인한 낮은 업무 효율성, 불완전한 기업구조, 불투명한 기업운영 등으로 부실 만연
- 베트남 정부는 1992년 일부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민영화 추진하여,

현재까지 4차에 걸쳐 국영기업 구조조정 실시 중

- 베트남 정부는 '15년까지 356개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것을 발표
- * 베트남 최대기업인 국영석유공사는 '15년까지 총 16개 자회사를 민영화 추진
- 그러나, 2014년 중 지분 매각은 64개사, 비핵심사업 매각액은 3조 동 수준으로 목표 (432개사, 22조동)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구조조정은 매우 더디게 진행 중이며, 실효성은 미지수

< 베트남의 국영기업 구조조정 4단계 >



* 출처: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Vietnam

④ 플랜트 및 공공조달 시장 지속 확대 국면

- 중앙정부, 58개성, 5개 도시, 3,265개 공기업 공공조달 시장
- 2014년 베트남은 총 35,000개의 공공조달 입찰이 진행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430억 달러로 추정 (이중 국제입찰 1,000건)
- 2020년까지 총 457억 달러 규모의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 다만, 정부 예산은 30-50억 달러이며 외국인 자본이 47억 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PPP 등 민간자본투자 320억 달러를 충당 예정
- '14년 전자정부, 교육정보, ITS 등 20억불 규모로 성장
- 베트남 IT시장 규모는 '14년 32.6억불로 전년대비 15.6% 성장을 하였음
- * ('12년) 23.5억불, ('13년) 28.2억불, ('14년) 32.6억불

- 2016년까지 아날로그방송 Switch-off
 - 베트남 정부는 2016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단계적으로 중단, 2020년까지 디지털 방송 전환 완료를 위해 188억 달러 투입
- 방산조달 분야도 우리기업이 적극 진출할 시장
 - 지속 성장하는 베트남 방산분야 조달시장에 한국형 방산물자 수출 확대 필요
 - * 방산시장 규모(기술이전료 등 포함) : ('12)41억불 → ('14)69억불 → ('16)107억불
- 공공프로젝트 분야 PPP 사업 확대
 - 베트남 정부는 2014년을 기점으로 PPP 투자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법규제도 또한 완화 중
 - * 베트남 도로 및 교량 건설을 위해 '15년까지 총 228.6억 달러, '16~20년까지 총 347.6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
 - * 그러나, 베트남 정부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여, 전체 예산의 30~40%는 PPP 방식으로 예산 조달 중

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베트남의 참여 전략은?

- 베트남의 섬유산업, TPP 최대 수혜업종으로 부상
 - 베트남의 주력 수출시장이 미국·캐나다·EU·일본·한국임을 감안할 때 TPP는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출 및 對베트남 투자확대로 베트남의 섬유산업은 비약적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은 TPP 발효 시 2020년까지 대미 섬유 수출액이 현재의 2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 2015년 내 타결 예정인 TPP는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며, 투자, 노동, 환경, 지적 재산권 등 시장개방에 대한 무역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협정으로,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가장 핵심적인 무역협정 중 하나임
 - * 베트남-EU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도 2015년 내 타결 예정
- 이미 베트남 시장에서는 TPP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한국을 포함한 많은 해외기업들이 원사·직물 부문에서의 투자(신규/확대)진출을 진행 중
 - 한국 섬유업계는 대미 수출에 대비하여 베트남 내 섬유·직물 생산설비 확충 필요
 - 또한 안 포워드(yarn forward) 원산지 기준에 대비하여, 원사에서부터 염색, 재단, 봉제에 이르는 일괄 생산체제 구축 등의 전략적인 투자진출 전략 필요
 - * 안 포워드는 미국의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원사 생산에서부터 섬유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FTA 체결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III

베트남시장 진출전략

1

중장기 진출전략

목 표

“2020년까지 한-베 교역 700억불 달성”

추진방향	추진과제	세부 추진계획
한-베 FTA 활용	한-베 FTA 활용한 Korea-Vietnam Partnering 사업 추진	○ K-V Week 2015 ○ Korea-Vietnam FTA Show 2015
공공 SOC 분야 공략	베트남 정부재정 지출 확대 기회, 공공 SOC분야 진출 강화	○ 한전-중소기업 전력기자재 동반진출 사업 ○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 사절단 ○ 베트남 프로젝트 시장 진출 사업 ○ IT Korea in Vietnam ○ 개별 프로젝트 수주지원
공공조달 시장 공략	베트남 일반물자, 방산물자 공공조달 시장 공략 확대	○ G2G 협력 사업 발굴 ○ 방산물자 사절단 ○ 베트남 방산물자 조달 파견단 방한 사업
물류인프라 구축	물류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통시장 진출 확대	○ 하노이 공동물류센터 구축 ○ Vin Group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
의료분야 공략	의료시장 급성장에 따른 시장진출 활성화	○ 해외 병원프로젝트 수주지원 ○ 베트남 의료수출 상담회

① 한-베 FTA 활용한 Korea-Vietnam Partnering 사업 추진

○ 『K-V Week 2015』

- 타겟 국내 고객군 : 베트남 연매출 총 600억불의 5대 글로벌 기업과 상생/동반 성장 할 수 있는 5대 Target 산업분야 강소/중견기업 대상
 - * 월드챔프 사업 참가 고객 우선 선정
- 사업규모 : 강소·중견 및 대기업 100개사/베트남 글로벌기업 10개사
 - * 목표기업/연매출 : 플랜트(PVN 360억불), 에너지(EVN 80억불), 건설(Vinacomin 45억불), 통신(Viettel 70억불), 유통(Phu Thai Group 3.5억불) 등
- 사업내용 : (융복합) 수출상담회, 프로젝트진출상담회, 투자진출상담회
 - * (부대행사) 한-베 FTA설명회, 베트남 성시별 투지진출세미나 등

○ 『Korea-Vietnam FTA Show 2015』

- 타겟 국내 고객군 : 한-베 FTA수혜 산업/품목관련 기업 70개사 수준
 - * 내수/수출 초보기업 50% 참여목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정책에 적극 동조
 - *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기업 우선 선정, 우드팔렛 등 원부자재 중심 수입업체도 선정
- 사업규모 : 국내 50개사 내외 현지 바이어 700개사 이상
 - * 기존 일본/중국 거래선 바이어 중 한국산으로 대체하려는 바이어 우선섭외
- 사업내용 : (Main) 전시·수출입 상담회 (부대행사) 한류 Media관 운영
- 일시 및 장소 : '15.12월(2박 3일간, 잠정)/하노이 NCC전시장

② 베트남 정부재정 지출 확대 기회, 공공 SOC분야 진출 강화

- (전력) 현재 16,000MW에서 2020년까지 59,44MW로 확대하고자, 향후 10년간 매년 4,000MW 상당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
 - 이중 48개의 발전소(발전량 33,245MW, US\$ 396억)는 EVN에서 추진할 예정
- (도로) 2020년까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총 연장 5,900km 상당 20개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 전망

- (수자원) 2025년까지 도심지역과 산업지구 상수 보급 계획에 따라, 도심지역 일일 1명당 120리터를 공급하고자, 매년 6억불 투자 중
- (IT) 2015년 본격적인 4G 서비스 구축 착수, 디지털방송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186억불 투자 등 IT 특수 기대

③ 베트남 일반물자, 방산물자 공공조달 시장 공략 확대

- (일반물자) 중앙정부, 58개 성, 5개 도시, 3,265개 공기업 공공조달 시장
 - 2014년 베트남은 총 35,000개의 공공조달 입찰이 진행되었으며, 전체 예산 규모는 430억 달러로 추정 (이중 국제입찰 1,000건)
- (방산물자) 연간 30% 이상 성장하는 방산물자 조달 시장 공략
 - * 방산시장 규모(기술이전료 등 포함) : ('12)41억불 → ('14)69억불 → ('16)107억불

④ 물류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통시장 진출 확대

- 베트남 바이어들의 소량구매 패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소매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구축
 - 기존 국내기업들은 최소 오더물량이 안될 경우, 수주를 포기하여 수출성약이 막바지에 무산되는 사례 발생,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소량 오더 수주 확대
 - 최근 현지 유력기업인 Vin 그룹에서 베트남 최대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 중, 이에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쇼핑몰 입점 지원

⑤ 의료시장 급성장에 따른 시장진출 활성화

- 현지 의료인프라 낙후 및 의료시장 급성장에 따라 병원프로젝트, 의료IT 시스템, 의료기기 등의 현지진출 활성화 지원
 - 대형병원 신축 및 현대화 수요에 적극 대응, 국내 의료수출 확대
 - * '15.2.4(수) 연세의료원-베트남 108 군병원 병원운영시스템 도입협력 MOU 체결 지원

【별첨】

가 관할지 경제동향

□ 베트남 대외 경제동향

<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

구분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DP	억달러	964	1,060	1,335	1,558	1,712	1,865
GDP 증가율	%	5.4	6.4	6.2	5.2	5.4	5.98
1인당 GDP	달러	1,093	1,334	1,543	1,755	1,868	2,100
산업생산증가율	%	7.6	14.0	6.8	4.8	5.9	7.6
수출	억달러	566	715	969	1,146	1,321.3	1,501.9
수입	억달러	688	835	1,067	1,138	1,321.2	1,480.5
무역수지	억달러	▲122	▲120	▲98	7.8	0.1	21.4
물가상승율	%	6.9	11.8	18.1	9.2	6.6	4.1
외채	억달러	331	449	531	591	682	685
공채	억달러	347	559	653	758	959	882
외환보유고	억달러	141	154	192	244	308	-
환율	Dong/\$	17,941	19,100	20,663	20,830	21,036	21,200
기준금리	%	7	8	9	9	9	9
FDI	억달러	231	199	156	163	216	202
외국인 관광객	천명	3,772	5,050	6,014	6,847	7,572	7,800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세관, World Bank, Globalinsight, NDF, Bloomberg

① 거시 경제 안정화 및 점진적인 경제성장 기조 지속

- (GDP) 2014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98%로 2012년 5.25%, 2013년 5.42%에 이어 3년 연속 5% 이상의 성장 기록
 - 특히 2014년 1분기 5.06%, 2분기 5.34%, 3분기 6.07%, 4분기 6.96%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2015년 경제전망에 청신호
 - * GDP 성장률: 2011(6.2%)→2012(5.25%)→2013(5.42%)→2014(5.98%)→2015목표(6.2%)
 - 2014년 국제 신용기관의 베트남 신용등급 상향 조정
 - * Moody's 국가 신뢰지수 : B2 → B1 (2014. 7월)
 - * Fitch 장기외화매매 및 통화매매 발행채 신용등급 (IDR) : BB → B+ (2014. 11월)
- (소비자물가) 2014년 베트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4.09%로 2013년 6%보다 더욱 낮아진 안정 기조 유지
- (교역) 2014년 사상 최대인 21.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수출 U\$1,501.9억, 수입 U\$1,480.5억) 기록 및 이에 따른 對미국 달러와의 환율 안정화 기여
 - * 무역수지 추이(단위:U\$): 2011(△98억) → 2012(8억) → 2013(0.1억) → 2014(21.4억)
- (외국인투자) 2014년에 202.4억 달러의 FDI 유치로 (신규 156.5억불, 증액 45.9억불) 안정적 기조 지속
 - * FDI 추이(억달러): 2010(172) → 2011(147) → 2012(130) → 2013(216) → 2014(202)
 - 매년 GDP의 12~18%규모의 신규 FDI 유치, 7~9%규모의 ODA 공여
 - '11.8월 출범한 신내각은 사회인프라 구축을 핵심 경제목표로 추진
 - * 국가 도로망 구축을 위해 '15년까지 총 238억 달러 투자 계획
 - * 플랜트, 자원개발에 일본, 중국, 유럽의 투자 및 ODA 규모 확대

②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노력 가속화

- 2014년 한-베 FTA, 베-관세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FTA 협상 타결에 이어, 2015년 베-EU FTA, TPP 협상 타결 추진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교역확대 노력 강화
-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대응한 내부정비 등 글로벌 경제체제 구축 가속화

<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

(단위 : US\$억)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수 출	969.1	1,145.7	1,321.3	1,501.9
수 입	1,067.5	1,137.9	1,321.2	1,480.5
무역수지	-98.4	7.8	0.1	21.4

*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 2014년 對베트남 국가별 수출입 동향 >

(단위 : US\$백만)

국가명	수출액	국가명	수입액
미국	28,656	중국	43,868
중국	14,906	한국	21,736
일본	14,704	일본	12,909
한국	7,144	대만	11,085
홍콩	5,203	태국	7,119
독일	5,185	싱가폴	6,827
아랍에미리트	4,627	미국	6,284
호주	3,990	말레이시아	4,193
말레이시아	3,903	인도	3,133
네덜란드	3,769	독일	2,623
그 외	58,099	그 외	136,072
합계	150,186	합계	148,049

*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동향 >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1	2012	2013	2014
각종 전화기 및 부품	6,886	12,717	21,244	23,607
섬유/직물제품	14,043	15,093	17,947	20,949
전기전자제품/부품	4,670	7,838	10,601	11,440
신발류	6,549	7,262	8,410	10,340
수산물	6,112	6,093	6,717	7,836
기계/플랜트 및 부품	4,160	5,537	6,014	7,314
원유	7,241	8,229	7,278	7,229
목제품	3,955	4,666	5,562	6,232
수송수단 및 부품	2,354	4,580	4,967	5,627
커피	2,752	3,673	2,721	3,558
기 타	38,184	38,885	40,674	46,054
합 계	96,906	114,573	132,135	150,186

*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동향 >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1	2012	2013	2014
기계/플랜트 및 부품	15,342	16,037	18,687	22,500
전자제품 및 컴퓨터	7,974	13,111	17,692	18,722
의류(원단)	6,730	7,040	8,397	9,428
각종 전화기 및 부품	4,971	5,042	8,048	8,476
철강제품	6,434	5,967	6,660	7,775
유류제품	9,878	8,959	6,984	7,665
플라스틱 원료	4,760	4,804	5,714	6,317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2,948	3,160	3,725	4,692
기타 금속	2,697	2,632	2,942	3,434
자동차 및 부품파트	3,104	2,078	2,407	2,146
기 타	46,883	44,962	50,869	56,894
합 계	106,750	113,792	132,125	148,049

*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 한-베트남 교역 동향

- 2014년 한국은 베트남으로 수출 223.3억불, 수입 79.9억불로 총 교역액 303.2억불, 무역수지 143.4억불 흑자를 실현

< 對베트남 수출입 동향 >

(단위: 백만불, 증가율(%))

년도	2011	2012	2013	2014
한→베 수출	13,551(44.9%)	15,946(18.4%)	21,088(32.2%)	22,333(5.9%)
베→한 수입	5,084(52.7%)	5,718(12.5%)	7,175(25.4%)	7,989(11.3%)
한-베 교역액	18,635(46.9%)	21,664(16.3%)	28,263(30.5%)	30,322(7.3%)
무역수지	8,467(40.6%)	10,236(20.9%)	13,913(35.9%)	14,344(3.1%)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OTIS)

- '14년 수출은 전년 대비 약 5.9% 증가한 223.3억 달러, 수입은 11.3% 증가한 79.9억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 흑자는 143.4억 달러 달성
- '14년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7.3% 증가한 303억 달러를 기록, 무역흑자는 143억 달러로 베트남은 한국의 4번째 무역 흑자국
- 베트남은 한국의 6위 수출대상국, 15위 수입대상국 (8위 교역대상국)
 - 베트남의 입장에서 단일국가 기준, 한국은 3위의 교역대상국 (수출 4위, 수입 2위)
 - 對베트남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관련 원부자재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① 한국기업의 투자 동향

-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과거 봉제·섬유 등 저임금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는 추세
 - 1차 금속, 전기, 장비, 전자부품 제조 등으로 투자 분야가 다변화
 - 신규 개방분야인 유통업,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점차 증가 중
- 2014년 말 기준 약 4,110개의 한국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 투자금액 기준 북부지역(하노이~다낭)에 약 51%,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다낭 이남)에 약 49% 분포
- 투자방식도 과거 개별·소규모 투자에서 대형화·동반진형이 가속화
 -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확대하면서 1·2차 협력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한편,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입대체를 위해 부품소재 분야의 투자를 장려
 - 이에, 한국기업도 부품소재 산업 등 기술 중심 기업의 진출이 증가

② 연도별·업종별 투자 동향

-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진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4년 말 기준 국가별 외국인 투자금액(증자포함) 누적 순위는 한국이 투자건수 4,110건, 투자금액 372.3억불로 1위를 기록
- 2013~2014년 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대기업의 투자 확대로 전년 대비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
 - 특히, 2014년의 경우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은 각각 684건, 73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91% 증가

<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현황 >

(단위: 건, US\$ 백만, 신고기준)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 수	247	325	345	332	488	684
투자액	1,661	2,356	1,466	1,178	4,293	7,327

*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 2014년 말 누계기준으로는 제조업 분야 64.0%, 부동산경영 18.7%, 건설 6.4%, 물류운수 2.5% 순임
- 2014년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의 투자 및 협력사들의 베트남 진출이 왕성하였으며, TPP를 대비하여 원단 생산 기업 등 봉제, 섬유 소재 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증가
- 2014년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65억 8천만 달러(증자 포함)를 기록, 총 투자액의 89.8%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 이어 부동산경영(36천만불, 5.0%) 호텔, 요식업(15천만불, 2.1%) 건설(5.9천만불, 0.8%) 순으로 기록

< 우리기업의 업종별 투자현황 >

(단위: US\$ 백만)

구분		1988년 이후 누적			2014년		
#	산업	투자건수	투자금액	점유율(%)	투자건수	투자금액	점유율(%)
1	제조, 가공	2,498	23,850	64.0	473	6,581	89.8
2	부동산경영	81	6,993	18.7	7	363	5.0
3	건설	562	2,401	6.4	66	59	0.8
4	물류운수	63	932	2.5	12	20	0.2
5	예술 오락	25	918	2.4	1	0.2	0.01
6	호텔, 요식업	90	710	1.9	11	156	2.1
7	도소매,유지보수	193	458	1.2	42	76	1.0
8	의료, 사회복지	22	219	0.5	1	0.2	0.0
9	기술과학전문	269	177	0.4	43	31	0.4
10	정보통신	125	115	0.3	11	9	0.1
합계(기타포함)		4,110	37,233.5	100	684	7,327.5	100

* 자료원 : 베트남 투자청, 순서는 누적 투자순

③ 형태별 투자 동향

- 한국기업들은 베트남 투자시 단독투자 방식을 선호
 - 2014년 말 누계 기준 100% 단독 투자한 한국기업은 전체 투자의 85.0%를 차지하는 반면, 합작투자는 12.4%에 그침
- 합작투자에 비해 100% 단독투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용이하며, 일부 서비스 업종(부동산, 금융)의 경우 투자진출이 용이함에 따라 합작투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음

④ 지역별 투자 동향

- 2014년 말 누계 기준 한국기업 최대 진출 지역은 하노이(53억불)
 - 이어, 삼성모바일 2공장이 들어선 북부의 타이응우웬(47억불)이 2위
 - 동나이(45억불), 호치민(39억불), 붕타우(36억불), 하이퐁(28억불) 순
 - * 2014년 한 해 기준으로는 타이응우웬(33억불, 1위), 박닌(13억불, 2위) 기록
- 북부 4개 지역인 하노이, 타이응우웬, 하이퐁, 박닌(40.7%),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 4개 지역인 동나이, 호치민, 바리아붕따우, 빈즈엉(37.3%)로 8개성에 전체 한국기업 투자의 78%가 집중
- 특히, 2014년 들어 우리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북부에 투자금액 기준 약 82.1%가 투자되었으며, 대부분의 제조업 투자 역시 북부지역에 실시

< 한국의 對 베트남 지역별 투자 동향 >

(단위: 건, US\$ 백만)

#	지역명	1988년~2014년 총 누적		2014년	
		프로젝트 수	투자금액	프로젝트 수	투자금액
1	하노이	857	5,302	141	417
2	타이응우웬	42	4,726	28	3,324
3	동나이	311	4,524	53	517
4	호치민	983	3,955	66	146

5	바리아붕따우	62	3,663	6	73
6	하이퐁	60	2,805	17	211
7	박닌	297	2,326	128	1,276
8	빈즈영	522	1,747	40	120
9	롱안	96	747	12	39
10	다낭	35	719	5	4
	총계 (기타포함)	4,110	37,233	684	7,327

*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 2014 한국 투자신고 상위 프로젝트 현황(US\$ 5천만 이상) >

(단위: US\$ 백만)

#	기업명	분야	투자금액	지역
1	Samsung Electronics Vietnam Thai Nguyen	전자기기, 휴대폰	3,000	Thai Nguyen(북부)
2	Samsung Display	디스플레이	1,000	Bac Ninh(북부)
3	ILSHIN VIETNAM	원단생산	170	Tay Ninh(남부)
4	SI Flex Viet Nam	PCB, 반도체	160	Bac Giang(북부)
5	Sunrise Phu Yen	리조트	80	Phu Yen(남부)
6	Jukwang Precision Vietnam	플라스틱 압출/성형	73	Thai Nguyen(북부)
7	E-MART Vietnam	유통업	60	Ho Chi Minh(남부)
8	KUK IL Viet Nam	원단생산	55	Dong Nai(남부)
9	Dong IL Vietnam	원단생산	51	Dong Nai(남부)
10	Nexgard	강화필름	50	Binh Duong(남부)
11	Bluecom Vina	TV 스피커	50	Hai Phong(북부)

*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⑤ 성공/실패 사례

○ 에버피아 (침구류 생산 및 유통업체)

- 대 표 자 : 이 재은
- 설립연도 : 1993년
- 연매출액 : USD 18,500만 ('14년 말 기준)
- 기업소개 : 에버피아는 지난 '93년 베트남에 진출하여 이불, 베개 등 침구류 제품을 생산한 이후 현재까지 평균 25%의 시장점유율로 베트남 시장 1위 자리를 유지. 베트남에서 '에버론'(Everon) 브랜드 사용중

* 성공요인 : 열사의 나라 베트남에서 필요 없을 것 같은 침구류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역발상 현지화 마케팅 전략 성공사례

< 한국기업 對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건수 >

- '88년 ~ '14년 말 누계 기준 4,110건의 한국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 하노이(5,302백만불, 857건), 타이응우웬(4,726백만불, 42건), 동나이(4,524백만불, 311건), 호치민(3,955백만불, 983건)
- '14년 한해 기준 684건의 한국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 타이응우웬(3,324백만불, 24건), 박닌(1,276백만불, 128건), 동나이(517백만불, 53건), 하노이(417백만불, 141건)

○ H사의 실패사례 (토지법 미숙지)

- H사 사장은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저렴한 일반 용지를 성정부로부터 분할 받아, 투자허가서 획득하였음
-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사용허가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거주자 이주 관련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허처분을 받음
- 베트남에서는 성정부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거주자가 있을 경우, 거주자 이주를 위한 보상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 H사는 보상협상이 지연되어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보상완료 처리를 하였으며 공장 완공까지 1년 6개월이 추가로 소요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음

* 현지 생활을 오래했음지라도, 전문성 있는 로펌 및 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법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준법경영 미이행 시, 경영활동에 큰 타격을 초래

다

2015년 무역관 추진사업(잠정)

① 한-베 FTA 활용한 Korea-Vietnam Partnering 사업 추진

○ 『K-V Week 2015』

- 타겟 국내 고객군 : 베트남 연매출 총 600억불의 5대 글로벌 기업과 상생/동반 성장 할 수 있는 5대 Target 산업분야 강소/중견기업 대상
- 사업규모 : 강소·중견 및 대기업 100개사/베트남 글로벌기업 10개사
 - * 목표기업/연매출 : 플랜트(PVN 360억불), 에너지(EVN 80억불), 건설(Vinacomin 45억불), 통신(Viettel 70억불), 유통(Phu Thai Group 3.5억불) 등
- 사업내용 : (융복합) 수출상담회, 프로젝트진출상담회, 투자진출상담회
 - * (부대행사) 한-베 FTA설명회, 베트남 성시별 투지진출세미나 등

< K-V Week 2015 주요 프로그램 >

구분	분야	오전	오후	부대행사
1일차 (PVN DAY)	플랜트	각 기업 구매(입찰) 설명회	수출/프로젝트/투자 진출 융복합상담	별도 공간에서 한-베 FTA설명회, 베트남 요성/시별 투자진출설명회 개최
2일차 (VIETTEL DAY)	통신			
3일차 (PHU THAI DAY)	대형유통			
4일차 (VINACOMIN DAY)	건설			
5일차 (EVN DAY)	에너지			

* 사업기간 : '15.6월 (한-베 FTA 발효시점과 연계)

○ 『Korea-Vietnam FTA Show 2015』

- 타겟 국내 고객군 : 한-베 FTA수혜 산업/품목관련 기업 70개사 수준
 - * 내수/수출 초보기업 50% 참여목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정책에 적극 동조
 - *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기업 우선 선정, 우드팔렛 등 원부자재 중심 수입업체도 선정
- 사업규모 : 국내 50개사 내외 현지 바이어 700개사 이상
 - * 기존 일본/중국 거래선 바이어 중 한국산으로 대체하려는 바이어 우선섭외
- 사업내용 : (Main) 전시·수출입 상담회 (부대행사) 한류 Media관 운영
- 일시/장소 : '15.12월(2박 3일간, 잠정)/하노이 NCC전시장

< 주요사업 일정 >

사업명	사업주체	일자/장소	사업 유형 / 설명	비고
K-V Week 2015	하노이무역관/ FTA사업팀	6월/서울	(수출상담회) 베트남 대형기업 과 국내 중견기업대상	신규
Korea-Vietnam FTA Show 2015	하노이무역관/ FTA사업팀	12월/하노이	(전시회) FTA수혜품목 중심 전 시상담회	신규

② 베트남 정부재정 지출 확대 기회, 공공 SOC분야 진출 강화

- (전력) 현재 16,000MW에서 2020년까지 59,44MW로 확대하고자, 향후 10년간 매년 4,000MW 상당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
 - 이중 48개의 발전소(발전량 33,245MW, U\$ 396억)는 EVN에서 추진할 예정
- (도로) 2020년까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총 연장 5,900km 상당 20개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 전망
- (수자원) 2025년까지 도심지역과 산업지구 상수 보급 계획에 따라, 도심지역 일일 1명당 120리터를 공급하고자, 매년 6억불 투자 중
- (IT) 2015년 본격적인 4G 서비스 구축 착수, 디지털방송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186억불 투자 등 IT 특수 기대

< 주요사업 일정 >

사업명	사업주체	일자/장소	사업 유형 / 설명	비고
한전-중소기업 전력 기자재 동반진출 사업	하노이무역관/ 글로벌전문기업	3월/하노이	(수출상담회) 한국전력 협력 중소기업의 전력기 자재를 베트남 EVN 등에 수출 목표로 EVN, PVN 구매 상담회 등 실시	계획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 사절단	하노이무역관/ 건설플랜트팀	4월/하노이	(수출상담회) 한국 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베트남 건설플랜트 발주처와 상담	계획
베트남 프로젝트 시장 진출 사업	하노이무역관/ 건설플랜트팀	9월/하노이	(설명회/수출상담회) 건설, 전력, 수자원, IT분야 의 베트남 국영 발주처와 조달설명회 및 수출 상담회를 실시	신규
IT Korea in Vietnam	하노이무역관/ IT사업단	11월/하노이	(설명회/수출상담회) 베트남 Big 3 통신사 프로 젝트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실시	신규
개별 프로젝트 수주 지원	하노이무역관/ 분야별 팀	상시/하노이	(OPS) 한국, 베트남 분야별 프로젝트 마케팅 자문단을 구성하여, 개별 프로젝트 수주가 조 기 달성되도록 지원 예시) * 오리온-Anvien방송 : MnA를 통해 우리 모바 일콘텐츠 기업 동반 진출 지원 * 한-베 전력플랜트 자문단 운영 * 한-베 건설엔지니어링 협의체 운영	신규

③ 베트남 일반물자, 방산물자 공공조달 시장 공략 확대

- (일반물자) 중앙정부, 58개 성, 5개 도시, 3,265개 공기업 공공조달 시장
 - 2014년 베트남은 총 35,000개의 공공조달 입찰이 진행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430억 달러로 추정 (이중 국제입찰 1,000건)
- (방산물자) 연간 30% 이상 성장하는 방산물자 조달 시장 공략
 - * 방산시장 규모(기술이전료 등 포함) : ('12)41억불 → ('14)69억불 → ('16)107억불

< 주요사업 일정 >

사업명	사업주체	일자/장소	사업 유형 / 설명	비고
G2G 협력 사업 발굴	하노이무역관/ 방산물자교역센터 공공조달팀	상시/하노이	(OPS) 조달 전문 에이전트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공조달 사업 공략 및 일반물자 및 방산물자 G2G 협력사업 발굴 * 연세대-베 국방병원 의료기자재 및 시스템 수출 사업 * 하노이국립대학교 이전사업 교육기자재 납품 사업 * 베트남公安부 재난방지센터 구축 사업 * 베트남 국방부 국가안전망 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방산물자 사절단	하노이무역관/ 방산물자교역센터 공공조달팀	3월/하노이	(수출상담회) 방산교역지원센터 및 전문가로 구성,公安부, 국방부의 조달부서와 G2G 협력 사업 발굴 및 수출지원	계획
베트남 방산물자 조달 파견단 방한 사업	하노이무역관/ 방산물자교역센터 공공조달팀	11월/서울	(수출상담회) 베트남公安부, 국방부, 방산에이전트 20명으로 구성된 구매사절단 파견 (KODAS 2015와 연계)	신규

④ 물류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통시장 진출 확대

- 베트남 바이어들의 소량구매 패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소매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구축
- 기존 국내기업들은 최소 오더물량이 안될 경우, 수주를 포기하여 수출성약이 막바지에 무산되는 사례 발생,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소량 오더 수주 확대
- 최근 현지 유력기업인 Vin 그룹에서 베트남 최대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중, 이에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쇼핑몰 입점 지원

< 주요사업 일정 >

사업명	사업주체	일자/장소	사업 유형 / 설명	비고
하노이 공동물류센터 구축	하노이무역관/수출유망기업팀	3월/하노이	공동물류센터 개소	신규
Vin 그룹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	하노이무역관	4월 및 10월 /하노이	(설명회)Vin그룹 온라인쇼핑몰 입점 설명회 개최 (상담회) 쇼핑몰 입점 상담회 * 하노이엑스포 등 대형마케팅 사업 연계 추진	신규

⑤ 의료시장 급성장에 따른 시장진출 활성화

- 현지 의료인프라 낙후 및 의료시장 급성장에 따라 병원프로젝트, 의료IT 시스템, 의료기기 등의 현지진출 활성화 지원
- 대형병원 신축 및 현대화 수요에 적극 대응, 국내 의료수출 확대
- * '15.2.4(수) 연세의료원-베트남 108 군병원 병원운영시스템 도입협력 MOU 체결 지원

< 주요사업 일정 >

사업명	사업주체	일자/장소	사업 유형 / 설명	비고
해외 병원프로젝트 수주지원	하노이무역관/지식서비스사업단	수시/하노이	(맞춤형마케팅) 병원건설, 의료IT시스템 수주, 의료기기 공급 등 의료수출 활동 전반에 대해 연중 맞춤형으로 지원	계획
베트남 의료수출 상담회	하노이무역관/지식서비스사업단	10월/서울	(수출상담회) 신축중인 108군병원 등 현지 유망 의료프로젝트 발주처를 국내에 초청, 의료IT, 의료기기, 병원설비 등 공급을 위한 수출상담회 개최 * GBMF 등 국내 대형 의료수출상담회와 연계 추진	신규

* 자료관련 문의

구분	담당자	Tel	Email
하노이 무역관	정상현	84-4-3946-0511(ext103)	chungsh@kotra.or.kr
본사 신흥시장팀	안유석	02-3460-7312	sean-ahn@kotra.or.kr

(끝)